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1. 10. 6.(수) 09:00	배포 일시	2021. 10. 6.(수) 09:00
담당 부서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책임자	과장 홍지원 (044-203-3322)
		담당자	사무관 강정은 (044-203-3328)

신남방 5개국 현대미술 작가들과 세계 연대를 말하다

- 10. 6.~15. 해외 전시 기획자 등 초청해 온라인 토론회, 작품 상영회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홍(KOCIS)]은 신남방 5개국 전시 기획자와 미술작가들을 초청해 10월 6일(수)부터 15일(금)까지 현대미술 온라인 토론회와 작품 상영회를 진행한다.

해문홍은 매년 해외 주요 현대미술 분야 인사들을 초청해 국내 인사들과 교류하고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해외 협력망을 강화하는 '해외 주요 인사 초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나와 우리 사이(ME Culture / WE Society)'라는 주제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 5개국과 한국의 전시 기획자와 매체(미디어) 작가 28명이 함께한다. 참가자들의 인터뷰와 매체 작품은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10월 6일(수)부터 순차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작품 상영회도 이어진다. 국내에서는 10월 7일(목) 시지브이(CGV) 청담씨네시티에서 무료로 상영회를 열고, 5개 참가국에서는 10월 중에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 누리집: www.krf10x10.com, 유튜브: www.youtube.com/c/KOREARESEARCHFELLOW10x1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rf10x10/ (@krf10x10)

이번 행사에는 ▲ 2020년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 싱가포르관 전시 기획자로 참가했던 미셸 호(Michelle Ho)를 비롯해 ▲ 파라 와르다니(Farah Wardani) 2021년 자카르타 비엔날레 감독(디렉터), ▲ 조셀리나 크루즈(Joselina Cruz) 마닐라 현대미술관 관장, ▲ 베트남 전시 기획자 프엉 린 응우옌(Phuong Linh Nguyen), ▲ 태국 전시 기획자 마누뽄 릉아람(Manuporn Luengaram) 등 해외 전시 기획자 5인이 참여한다.

아울러 베트남의 꾸인 동(Quynh Dong), 도 반 호앙(Do Van Hoang)과 싱가포르의 라벤더 창(Lavender Chang), 크레이 첸(Kray Chen), 인도네시아의 샤우라 코트루나다(Syaura Qotrunadha), 나타샤 톤테이(Natasha Tontey) 필리핀의 데릭 투말라(Derek Tumala), 키리 달레나(Kiri Dalena), 태국의 아이-나 푸유타논(I-na Phuyuthanon), 쁘라빳 찌와랑산(Prapat Jiwarangsan) 등 해외 매체 작가 10인도 참석해 작품을 선보인다.

국내에서는 ▲ 독립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권태현을 비롯해, 김정연, 문한알, 문희영, 박지형, 이설희, 이승아, 이현종, 임종은, 장진택 등 전시 기획자 10인과 ▲ 2021년 에르메스 미술상을 받은 류성실과 염지혜, 차재민 등 매체 작가 3인이 해외 참가자들과 교류한다.

이번 행사 기획을 맡은 이대형 예술감독은 “현재 전 세계에서는 편 가르기식의 신냉전의 징후, 감염병 세계 유행이 일으킨 아시아 혐오 범죄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부터 환경문제까지 인류 공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해답을 찾기 위해 국내외 미술관계자 28명과 미술 전문 매체 편집장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라고 말했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올해는 특별히 아시아 5개국 작가와 전시 기획자를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같은 고민과 공감대를 가진 아시아 국가 작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업하면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해문홍은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예술계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교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 현대미술 국제 토론회와 작품 상영회 계획
2. 초청 연사 명단과 이력
3. 2021 행사 포스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2021 현대미술 국제 포럼 및 작품 상영회 계획

□ 사업 개요

○ **(행사 주제)** ME Culture / WE Society

○ **(행사 일시)** '21. 10. 6.(수) ~ 10. 15.(금)

○ **(상영 채널)** 공식 누리집 www.krf10x10.com (유튜브 연동)

- 유튜브 www.youtube.com/c/KOREARESEARCHFELLOW10x10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rf10x10/ (@krf10x10)

○ **(초청 인원)** 아시아 5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해외인사 15인 / 국내인사 13인 _ 총 28인

* 해외인사(미디어 작가10인, 큐레이터 5인), 국내인사(큐레이터 10인, 미디어작가3인)

○ **(주요 내용)** 'ME Culture / WE Society'라는 주제로 국내외 예술관계자 28명을 초청하여,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영상 소개 및 참여 미디어작가의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오프라인 작품 상영회 개최

□ 세부 내용

○ **(작품 상영회)**

- 10월 7일 (목) CGV 청담씨네시티 _더 프라이빗 시네마 11층
- 일반 오픈 / 2회차 진행 (13:00 / 19:00) 무료 관람

* 네이버 예약을 통해 상영회 예매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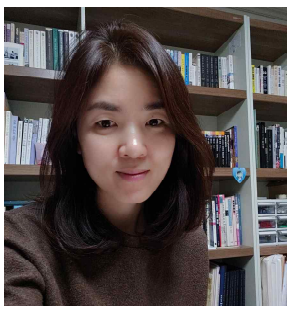
* 아시아 5개국 작품 상영회 일정은 누리집을 통해 차후 공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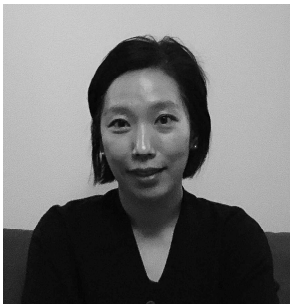
○ **(온라인 영상 공개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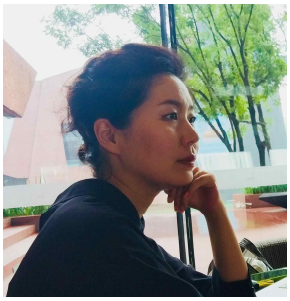
날짜	매칭 인터뷰 영상
10월 6일(수)	권태현 x 키리 달레나
10월 7일(목)	문한알 x 도반 호앙
10월 8일(금)	문희영 x 쁘라빳 찌와랑산
10월 9일(토)	임종은 x 나타샤 톤테이
10월 10일(일)	이승아 x 크레이 첸
10월 11일(월)	이현종 x 꾸인 동
10월 12일(화)	박지형 x 아이-나 푸유타논
10월 13일(수)	장진택 x 라벤더 창
10월 14일(목)	김정연 x 샤우라 코트루나다
10월 15일(금)	이설희 x 데릭 투말라

붙임 2 초청 연사 및 이력

□ 국내 연사: 국내 큐레이터 10인

이름	사진	경력
권태현 (b.1990)		**독립 큐레이터** 권태현은 서울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2021, Ignorant Mobility, 서울>, <2020, 광장/조각/내기, 서울>, <2018, A Mode, 예지동시계골목, 서울> 외 여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021, 전시미분사, 서울>, <2020, 모두의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등에 참여했다. 기획자이자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전시 공간들의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예술 바깥의 것들을 어떻게 예술 안쪽의 대상으로 사유할 수 있을지 탐구한다. 정치적인 것을 감각의 문제로 파악하는 관점에 무게를 두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물질과 비물질의 이분법을 가로지르는 기획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김정현 (b.1970)		**독립 큐레이터** 김정연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독립기획자로서 미술사, 전시기획, 시각문화학을 전공하고, 문래예술창작촌의 '솜씨', 복합예술공간 '아트라운지+디방', 싱가포르 정부 프로젝트 일환인 'Space Cottonseed'를 개관하고 운영했다. 현대카드 수석 큐레이터로 재직 당시 '가파도 국제아티스트 레지던시'를 개관하기도 했다. 현재는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공동 운영/기획하고 있으며, 2020-2021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공동기금 <한국-싱가포르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총괄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문한알 (b.1986)		**국립현대미술관 에듀케이터** 문한알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과 에듀케이터로 활동 중이다. 매개자가 되어 관객 참여 및 실천 경험을 다각화하기 위한 경로를 모색하고, 이와 동시에 독립 기획자로서 동시대 미술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에 대한 글을 쓰거나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협력한 전시로 《아크로뱃》(아트스페이스 보안 2, 2021), 《버블의 때》(온수공간, 2020)가 있으며 《벽에 맴도는 소리》(의외의조합, 2018)를 기획했다. 아트유니온 프로젝트 및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일했다. 휘트니미술관의 전시 패러다임을 분석한 졸업 논문을 작성해 미술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대학원 박사 과정 중에 있다.
문희영 (b.1977)		**예술공간 집 디렉터** 문희영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동대학원에서 순수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예술공간 집'의 디렉터로 <2017, 다시 호흡하는 시간, 예술공간 집, 광주>, <2018, 그리고 그리다, 예술공간 집, 광주>, <2018, 존재의 재발견, 예술공간 집, 광주>, <2019. 그 곳,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술공간 집, 광주>, <2020, 강연균의 하늘과 땅 사이, 예술공간 집, 광주> <2021, 가까이 다가가고, 멀찍이 물러나는, 예술공간 집, 광주>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집'이라는 상징성과 연계된 근원적 공간의 의미, 도심의 변화와 개발, 원도심에 대한 기억 등 과거의 시간을 들춰내는 전시를 진행했다. 지역의 다양한 작가를 발굴하고, 기성 작가들의 묻힌 예술자원을 들춰내며, 세대간 다양한 교류의 지점을 만들어가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역미술의 내적교류와 외적교류를 형성하며 다양한 담론을 형성해가는 기획을 추구한다. 최근에는 지역미술사 연구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저술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박지형 (b.1990)		**디스위켄드룸 큐레이터** 박지형은 디스위켄드룸의 큐레이터로서 한국의 동시대 미술이 감지하는 현재적 감각을 국제적 언어로 전환하는 전략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부에서 회화와 예술학을 공부한 뒤 영국 리즈대학교 박물관학 석사와 코톨드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의 미술사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홍익대학교 예술학 박사 과정 중에 있다. 광주비엔날레 코디네이터와 페리지갤러리의 큐레이터로 일했다. 이후 독립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전시 《멀고도 먼》(온수공간,2021), 《노려본들 어쩔 것이냐》(두산갤러리, 2020, 공동기획), 강정인 개인전 《Interlude》(전시공간, 2020), 《투명함을 닫는 일과 어두움을 여는 일》(강남아파트, 2018)등을 기획했고,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와 두산큐레이터워크샵(두산갤러리, 2019)에 참여한 바 있다.
이설희 (b.1987)		**2020 부산비엔날레 전시팀장** 이설희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독립 큐레이터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현대미술포럼 출판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0부산비엔날레 전시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야콥 파브리시우스 전시감독과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를 총괄/진행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멀티-액세스 4913»(2019), «하늘 땅 사람들»(2018) 등의 전시를 기획했으며, 독립 프로젝트로 «그 가운데 땅»(아르코미술관, 2021, 협력기획), «현실활용가»(두산갤러리, 2016, 공동기획), «시간의 주소, 소공동 112번지»(서울 소공동 일대, 2010) 등을 개최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2» 코디네이터로 일했고,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코스(2016) 및 테이트모던 인텐시브 코스(2019)에 참여했다. 동시대 미술의 역사화를 화두로 한 공동저서 『키워드로 읽는 한국현대미술』(사회평론, 2019), 『한국 동시대 미술 1990년 이후』(사회평론, 2017) 출간했다. 각기 다른 전문분야의 콘텐츠가 시각예술을 통해 번역/해석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매체론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승아 (b.1975)		**유아트랩서울 디렉터** 이승아는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및 동 대학원 판화 전공 졸업하였다. 런던 골드스미스 컬리지에서 문화연구(인 터랙티브 미디어)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학부에서 미디어 디자인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공과정을 거쳐, 미디어 아티스 트, 독립기획자로서 국, 내외 미디어 전시를 기획하였으며 대안공간 스페이스 15 번지, 한빛미디어갤러리, 토탈미술관의 객원 큐레이터로 디지털 아트 기반의 워크숍 및 융복합예술 교육, 그리고 전시를 진행하였다. 2015 년 싱가포르에서 전시 기획 단체인 Inter-Art 공동설립 후, 전시자문 및 국내,외 작가 들의 전시 및 페스티벌 기획하는 등 다방면의 국제네트워크 채널을 마련하였다. 2015 년 싱가포르와 한국의 수교 40 주년 외교/문화행사로 싱가포르 오픈 미디어아트 페스티발 공동 조직하였으며, 2020 년 4 회째로 문화비축기지(서울) 및 요르 단국립미술관(암만, 요르단)에서 개최하였다. 이외에 콘텐츠 진흥원 융복합콘텐츠 연구과제 <미디어 아티스트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에 프로그램 및 전시기획자로 참여하였으며 기술미디어에 기반한 다양한 전시 및 페스티벌을 기획, 운영하였다. 현재 전시기획자로 활동 중이며 유아트랩서울 디렉터 및 공간 타이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재직 중이다.
이현종 (b.1987)		**독립큐레이터 및 아티스트** 이현종은 런던의 첼시 예술대학교에서 순수미술 학사 그리고 영국왕립예술학교에서 순수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1, 노래하는 사람, 대안공간 루프, 서울>, <2021, 콜렉티브 컬렉션, 을지예술센터, 서울>, <2021, 엑소포니, 을지로 OF, 서울>, <2020, The Whistler, 갤러리 ERD, 서울>, <2020, No Space, Just A Place : Eterotopia, 대림 미술관, 서울>, <2018, APT Live, APT Studios, 런던>, <2018, Watch This Space, Hackney Centre For Better Health, 런던>, <2018, hmn 015, 런던>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듀오 콜렉티브 detox.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을지로 OF의 기획자, 현대무용단 리브레호벤의 음악 연출가이자 DJ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로 상호적인 관객 참여형 작업들을 선보이며, 언어, 소통, 그리고 하류문화의 근원을 기반으로 사운드, 영상, 퍼포먼스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임종은 (b.1976)		**독립 큐레이터** 임종은은 아시아 현대미술에서의 전통에 대한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화 속에서 아시아 예술을 재정의하는 데 관심이 많은 독립 큐레이터다. 그녀의 큐레이터 작업은 현대미술에서 아시아 전통의 재해석을 연구하고 근대성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서구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후기 식민주의, 로컬리티 등을 둘러싼 이슈로 확대된다. 그녀는 2019년 제1회 상하이국제종이비엔날레에서 한국관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그녀는 화이트 블록 아트센터와 대전 미술관 같은 다양한 미술 기관들과 일하기 전에 큐레이터로 대안공간과 공공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경험이 있다. 그녀는 현재 대학교에서 미술사와 이론을 가르치고, 아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네트워크와 작가연구 등의 경험을 가지고 학술적인 연구와 전시 관련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열리는 Korean Pavilion for Biennale Jogja_Art Exhibit 2021 of KONNECT ASEAN 에 공동 큐레이터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진택 (b.1986)		**독립 큐레이터** 장진택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이자 연구자이다. 영국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에서 Curating Contemporary Art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한국의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일민미술관,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등지의 기관에서 전시를 기획하였고, 기획 전시 플랫폼 INTERACTION SEOUL을 독자적으로 운영키도 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ZER01NE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의 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독립 큐레이터로서 동시대성에 기반한 한국의 큐레이팅 실천 및 그 형성 과정에 관심을 두고 전시와 텍스트를 생산하고 있다.

□ 해외 연사: 해외 미디어작가 10인

국가	이름	사진	경력
베트남	**꾸인 동** Quynh Dong (b.1982)		퀸 동은 1982 년 베트남 하이퐁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스위스 비엘의 디자인 스쿨에서 그래픽 디자인 학위를 취득하고, 베른 예술 대학에서 미술 학사를 졸업, 취리히 예술대학원에서 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베른 Sommerakademie im Zentrum Paul Klee(SAK), 뉴욕 ISCP(인터내셔널 스튜디오& 큐레이토리얼 프로그램), 암스테르담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하노이 헤리티지 스페이스에서 Month of Arts Practice(MAP)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마쳤다. 2016 년, 그녀는 베트남 하노이의 나산 컬렉티브에서 첫 개인전 "Quynh by Night"을 개최한 바 있다. 그녀는 주로 개념 회화 작업을 한다.
	도 반 호앙 Do Van Hoang (b.1987)		도 반 호앙은 베트남의 영화감독이다. 2011 년 하노이연극영화대학에서 각본을 전공하고 졸업했다. 졸업 후 작가/감독으로 활동하며 단편 소설/다큐멘터리, 비디오 아트, TV 시리즈, 뮤직 비디오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왔다. 그의 영화는 하노이 독페스트(Docfest), 야마가타 영화제, 퐁피두 센터, 광동 타임즈 뮤지엄에서 상영되었다.

싱가포르	**크레이 첸** Kray Chen (b.1987)		크레이 첸은 영화, 퍼포먼스, 설치미술을 하는 비주얼 아티스트다. 크레이는 사회적 의식과 행동에 매료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 그는 정치체(body politic)에 대해 고찰하고 이데올로기와 생명권력의 영향, 잔재, 트라우마를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아트 인카운터스 비엔날레(2019), 싱가포르 비엔날레(2019), 방콕 아트 비엔날레(2018), NTU-CCA 싱가포르(2017), 프랑스 FRAC Des Pays De La Loire(2015), 싱가포르 아트스테이지/국제영화제(2016)에 출품되었으며, 2017 년 국가예술위원회의 Young Artist Award 를 수상하였다.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라벤더 창 Lavender Chang (b.1983)		라벤더 창은 개념사진(Conceptual Photography) 에 초점을 맞춘다. 창의 작업은 그녀를 둘러싼 미묘한 뉘앙스에 대한 감수성을 반영한다. 그녀는 이런 경험에 집중하고 더 깊이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캔버스를 만들면서 그녀의 죽음의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 창은 Noise Singapore Prize, Crowbar Awards, Young Talent Programme, France + Singapore Photography Art Awards 및 President Design Award 를 수상했으며, 그녀의 작품은 싱가포르 미술관, 뉴욕 선다람 타고르 갤러리, Alliance Française de Singapour, 미즈마 갤러리, ADM 갤러리, 싱가포르 아트쇼, Objectifs, 국제 오렌지 포토 페스티벌, 더 아트 하우스, 싱가포르 국제 아트 페스티벌, 국제 로테르담 영화제, 싱가포르 국립 미술관에서 전시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나타샤 톤테이** Natasha Tontey (b.1989)		나타샤 톤테이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아티스트다. 그녀의 예술작업은 주로 '가공된 공포(manufactured fear)'를 둘러싼 역사와 신화에 대한 허구성을 탐구한다. 그녀의 작업들은 주요 기관들의 관점에서가 아닌, 소외된 존재와 미묘하고 개인적인 투쟁에서 투영되는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그녀는 2021 트랜스미디알레, 교토 익스페리먼트 2021, 아시안 필름 아카이브(2021), Other Futures (2019), Liquid Architecture (2019) 등에서 선보인 바 있다. 그녀는 2020 년 ZKM 과 Akademie Schloss-Solitude 으로부터 HASH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 Junge Akademie Human Machine 펠로우로 있다.
	샤우라 코트루나다 Syaura Qotrunadha (b.1992)		샤우라 코트루나다는 사진, 인터랙티브 아트, 종이 재활용, 비디오 아트, 디지털 아카이브, 설치 및 출판자료 등 다양한 매체로 실험하는 인도네시아 아티스트다. 그녀의 작업은 주로 음악, 역사, 교육 및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재 쵸트루나다는 인도네시아의 잊혀진 역사와 열악한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예술 작품, 출판물 및 예술 워크숍 제작에 주력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Biennale Jogja XIII: Hacking Conflict, Indonesia Meets Nigeria"(2015), 족자 국립 박물관; "Berdiam/Bertandang: Art for Refuge"(2018), 인도네시아 국립 미술관; "LIFEs: Literature and Ideas Festival"(2019), 살리하라 커뮤니티 자카르타; "Cur(e)ating the Earth, Shifting the Center"(2020), 카리야 노말 바루 온라인 전시; "Julius Bär Next Generation Art Prize"(2021), 싱가폴 아트 클럽 버추얼 전시에 전시된 바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이 주최하는 "제 4 회 VH Award"의 최종 후보작 중 한 명으로 뽑혔고, Eyebeam NYC 레지던시 프로그램(2021)에 참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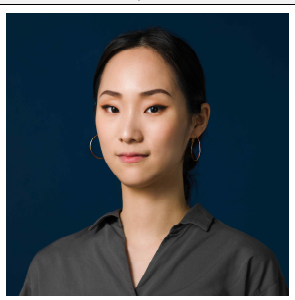
태국	**아이-나 푸유타논** I-na Phuyuthanont (b.1984)		아이-나 푸유타논은 2006년 태국 방콕에 있는 킹 몽쿳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라드크라방에서 건축학과 미술 학사 학위, 이후 2009년 랑싯 대학교 컴퓨터아트과의 예술 및 디자인 석사 학위, 그리고 2014년 출라롱콘 대학교 응용 예술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 8월부터 스리나카린위롯 대학교 시각 예술학부에서 리서치 어드바이저로 근무하다가 2014년에 연구원이 되었다. 그녀의 현재 관심 연구분야는 '태국 3개의 남부지방의 반란으로 인한 손실 이후의 상태, 태국 3개의 남부지방의 반란으로 고통받는 고아의 정신상태, 파타니 지역의 민족적 정체성 표현의 압박 상태, 비디오 예술 창작을 통한 태국 3개의 남부지방의 반란으로 고통받는 낙인 찍힌 인간, 비디오 예술 창작을 위한 태국 3개의 남부지방 찻집의 추억 이야기' 등이 있다.
	쁘라빳 찌와랑산 Prapat Jiwarangsan (b.1979)		쁘라빳 찌와랑산은 2011 년 런던의 Royal College of Art 에서 순수 미술 석사 학위를 받은 시각 예술가이자 영화 제작자다. 그는 창의적인 탐구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 특히 사진, 슬라이드 및 비디오를 통합하여 연구하고, 이주(migration)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태국의 역사, 기억 및 정치 간의 관계를 그려낸다. 지난 6 년 동안 그는 본국 밖의 이주 노동자들의 경험을 탐구하고 연구해왔다. 그의 영화는 베를린 국제 영화제(Forum Expanded), 로테르담 국제 영화제, Experimenta India, 서울 실험 영화제(EXiS), Onion City Experimental Film and Video Festival 에서 상영되었으며, 그의 설치 작품은 방콕, 런던, 도쿄, 브뤼셀, 홍콩, 싱가포르, 서울, 광주 등에서 선보여진 바 있다.
필리핀	**데릭 투말라** Derek Tumala (b.1986)		데릭 투말라는 뉴미디어, 비디오, 산업 자재 및 오브제를 사용하는 초학제적 아티스트다. 그는 정치, 상호 연결성, 우주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탐구하기 위해 지식의 모호함을 사용한다. 투말라의 주요 프로젝트는 아트바젤 홍콩, 대만 포모사 아트페어, 말레이시아 페낭 조지타운 페스티벌, FLAME HK 비디오 아트페어, 도쿄 아시아 아트 어워드, 한국 ASEAN 전시 등에서 전시된 바 있다. 또한 그는 필리핀 문화센터, UP Vargas 뮤지엄 및 아트페어 필리핀에서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는 미국 뉴욕 Apexart 펠로우십,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폴란드 Beyond Time Residency 및 Bellas Artes Projects, Flash Residency 에 참여한 바 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teneo Art Awards 2015 에서 "성스러운 기하학(Sacred Geometry)"이라는 작품으로 수상했으며, 현재 마닐라 The Drawing Room 전속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데릭 투말라는 시즌별로 DJ, VJ, 그리고 Mvltiverse 라는 마닐라의 예술 및 테크 분야 테크놀로지스트와 예술가들의 멀티미디어 커뮤니티의 주최자로써 활약하고 있다.
	키리 달레나 Kiri Dalena (b.1975)		키리 달레나는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가이자 영화 제작자다. 그녀의 작품과 영화는 사회적 불의, 불평등 및 인권에 중점을 둔다. 달레나는 개인, 혹은 Southern Tagalog Exposure(2001-2008) 및 REBAK(Respond and Break the Silence Against the Killings, 2016-현재)과 같은 컬렉티브로서도 활동한다. 그녀는 필리핀 로스 바뇨스 대학교에서 인간 생태학 학사를, 모웰펀드 필름 인스티튜트에서 16mm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을 공부했다. 그녀는 Ateneo Art Awards(2009)와 필리핀 문화 센터의 Thirteen Artists (2012)를 수상한 바 있다. 그녀의 작품은 싱가포르 비엔날레(2013), 요코하마 트리엔날레(2014), 후쿠오카 아시아 아트 트리엔날레(2014), 아시아 태평양 현대미술 트리엔날레(2015), 부산 비엔날레(2016), 자카르타 비엔날레(2017), 상하이 비엔날레(2018), 베를린 비엔날레(2020) 등 국제적으로 다수의 전시회에서 선보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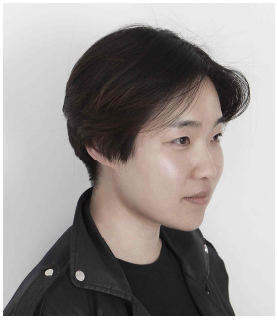
□ 해외 연사: 해외 큐레이터 5인

국가	이름	사진	경력
베트남	**프엉 린 응우옌** Phuong Linh Nguyen (b.1985) / 큐레이터 및 아티스트		프엉 린 응우옌은 2015-2017 년 프랑크프루트 슈테델슐레에서 토비아스 레베르거와 함께 객원 학생으로 공부했다. 2007-2088 년에는 Academia Albertina Belle di Arti Torino 에서 공부했다. 그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거주하며 설치, 조각 및 비디오에 걸쳐 다양하게 작업한다. 그녀는 베트남의 지리적 문화적 변화, 전통적 뿌리 및 파편화된 역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그녀의 작업은 눈에 보이는/보이지 않는 진리, 형태와 시간에 대해 숙고하고, 만연한 전위감과 덧없는 감각을 전달한다. 프엉 린은 2016 년 싱가포르 비엔날레, 타이베이 관두 비엔날레, 상하이 비엔날레에 참가한 바 있으며, 2017 년 Pollock Krasner 상을 받았다. 2018 년 주목할만한 40 세 미만 아시아 신진작가를 선정하는 Han Nefkens 재단의 Han Nefkens BACC Award for Contemporary Art 를 수상하며 개인전 <Trùng Mù – Endless Sightless>를 개최했다.
싱가포르	**미셸 호** Michelle Ho / 난징기술대학 ADM 갤러리 관장		미셸 호는 현재 난양이공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DM(Art, Design and Media) 갤러리 디렉터로 재직중이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큐레이터십 전공 박사 학위를 받은 그녀는 싱가포르 미술관(Singapore Art Museum)의 큐레이터로 태국 콜렉션을 담당하였고, 2019 년 베니스비엔날레 싱가포르관 큐레이터를 담당하며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국제 현대 미술 큐레이팅에 10 년 이상 종사해왔다. ADM 갤러리의 <Art>(2019)와 <Art of Conflict: Video Works from Asia Society Museum Collection>(2017), <Natee Utarit: After Painting>(2011), <The Collectors Show: Weight of History(>2013), <Time of Others>(2015 - 2016)등을 기획했으며 퀸즐랜드 미술관(QAGOMA), 도쿄 현대 미술관(MOT), 오사카 국립 미술관(NMAO)에 이르기까지 싱가프로 이외의 다양한 국가의 큐레이터들과 공동 작업을 이어왔다.
인도네시아	**파라 와르다니** Farah Wardani / 자카르타 비엔날레 2021 디렉터		파라 와르다니는 현재 2021 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비엔날레(Jakarta Biennale)의 전무이사이며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 리소스 센터의 부국장이다. 이전에는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있는 IVAA(인도네시아 시각 예술 아카이브)의 이사로 재직하며 인도네시아 예술에 대한 문서화 및 연구 플랫폼 구축을 담당했다. 와르다니는 2001 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교사, 작가, 큐레이터 및 예술 조직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2013 년 족자비엔날레, <XII Equator #2>의 예술 감독으로 참여, Cemeti Art House, Ruangrupa 와 같은 예술 공간 및 단체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이어오고 있다.

태국	**마누뽄 릉아람** Manuporn Luengaram (b.1972) / 큐레이터 및 연구원		마누뽄 릉아람은 태국의 비영리 예술 단체와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큐레이터이자 연구원이다. 그녀는 지역 예술 네트워크인 Arts Network Asia(ANA)의 전 매니저를 겸임한 바 있다. 2018 년, 그녀는 짐 톰슨 아트센터의 큐레이터팀에 합류하여 예술가들의 커미션과 프로젝트를 감독했으며, 이후 2020 년에는 제 2 회 방콕 아트 비엔날레의 예술감독 어시스턴트로 활동했다. 2021 년초부터 그녀는 아피찻퐁 위라세타쿤(Apichatpong Weerasethaku)의 새로운 영상설치를 포함하여 방콕의 100 Tonson Foundation 을 위한 새로운 전시회를 개발하고 있다. 그녀는 태국 문화부(2015)에서 발행한 태국판 동남아 현대 미술 선집의 공동 편집자며, Afterall Books 에서 출판한 'Artist-to-Artist': Independent Art Festivals in Chiang Mai, 1992-1998'(2018)의 연구조교를 맡은 바 있다. 그녀는 싱가포르 국립 미술관에서 발간될 『동남아 미술의 현대적 글쓰기』 (2022)의 편집위원회에 합류했다.
필리핀	**조셀리나 크루즈** Joselina Cruz / 마닐라 현대미술관 관장 및 큐레이터		조셀리나 크루즈는 마닐라 Saint Benilde 의 De La Salle-College of Contemporary Art and Design(MCAD)의 관장이자 큐레이터다. 그녀는 필리핀 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에서 미술사 학사, 런던 왕립 예술 대학(Royal College of Art, London)에서 현대 미술 큐레이터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크루즈는 마닐라의 로페즈 기념 박물관(2001-04)과 싱가포르 미술관(2004-07)에서 큐레이터로 일했으며 2008 년 제 2 회 싱가포르 비엔날레의 큐레이터, 2009 년 제 13 회 자카르타 비엔날레의 네트워킹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크루즈는 싱가포르 미술관(2005 년)의 <타피(Tàpies) 회고전> 큐레이터를 맡았고, 2017 년 제 57 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필리핀관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 국내 연사: 국내 미디어 작가 3인

이름	사진	경력
류성실 (b.1993)		류성실은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가로, 대한민국의 토착성이 신자유주의와 충돌하며 생겨나는 다양한 사건에 주목한다. 2018년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조소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2020년 가상의 스트리머 체리 장으로 출연해 온라인 스트리머의 컨텐츠 생산 방식을 패러디하는 《CHERRY BOMB》 을 발표하였고, 2020년에 웹상에서 개인전 《대왕 트래블 2020》 을 개최하였다. 2021년에는 에르메스재단 미술상을 수상하였다.

염지혜 (b.1982)		염지혜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현재의 단독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기보다 그 이면에 작동하는 힘을 찾고자 한다. 즉,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표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발생시킨 보이지 않는 힘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상상하기 위해 과학, 역사, 철학, 종교, 구전, 믿음 등 다양한 학문을 상상과 연구의 도구로 삼으며, 더불어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체감하는 감각을 중시한다. 과거와 현재, 오늘과 미래, 경험과 기억, 이미지와 꿈, 전설과 서사 등이 서로 혼합되어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연결고리의 탐색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과 새로운 말하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송은아트스페이스, 2021), 《모든 관점 볼텍스》(대구미술관, 2018) 등 5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재난과 치유》(국립현대미술관, 2021), 《이토록 아름다운》(부산시립미술관,2021), 《침묵의 미래: 하나의 언어가 사라진 순간》(백남준아트센터, 2020),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북서울시립미술관, 2019)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차재민 (b.1986)		차재민은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고 있으며 영상, 퍼포먼스, 설치 작업을 한다. 그녀는 합성 이미지가 아닌 촬영한 영상을 사용해 시각 예술과 다큐멘터리의 가능성과 무력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개인들의 현실에 접근하고, 그 개인들의 삶 안에 사회가 어떻게 스며 있는지를 주목한다. 브이드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필름앳링컨센터, 카디스트,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비엔날레 미디어시티, 베를린국제영화제, 오버하우젠국제단편영화제, 이흘라바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두산갤러리, 국제갤러리 등 다수의 그룹전과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붙임 3 2021 행사 포스터

2021.10.06.—15.
www.krf10×10.com
@krf10×10
sponsored by
media partners
global partners
ArtReview
ArtReview Asia
KOREA
RESEARCH
FELLOW10X10